

# 영광 대마산단 분양률 75% 돌파

### 남부산업(주)과 총 139억 투자협약 본사·공장 이전...40명 고용 창출

영광군은 지난 4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남부산업(주)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광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의 5개사 대표와 기업 관계자, 그리고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명원 영광군수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영광군과 이번 협약을 체결한 남부산업(주) (대표 박영희)는 광주 하남산단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인 핵심 뿌리기

술을 보유한 25년 전통의 주물제조 전문 기업으로 2만4,111㎡ 부지에 139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공장 건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본사와 공장 모두를 영광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4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마산단 투자 기업인 화천기공(주)의 협력업체이며 자동차 엔진부품, 로봇 부품, 공작·산업기계 부품 등을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제품은 주로 화천기공(주)에 납품한다.



영광군은 지난 4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남부산업(주)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은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대마산단단지 75%의 분양 성과를 올리게 됐다. 민선6기 동안 영광군이 주력해 온 기업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현재 중견기업 2~3개사와 투자

협약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대마산단 분양을 무난히 완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명원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군민 모두가 하나돼 마지막까지 기업인의 동반자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로 우량 기업 유치가 나날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유향기업 신규 발굴과 목표 기업의 집중 관리 등을 통해 타산단에 비해 우수한 산업단지 분양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산단 조기 분양 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곽홍순 기자

## 내고장 사람들

**조재운** 나주 시장 권한대행은 7일 오전 8시30분 시청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김경호** 화순군수 권한대행은 7일 오전 8시40분 군청 부군수실에서 실과소장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

**김재춘** 자연요법사라지기 대표는 7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046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서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자연건강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 나주 유망 중소기업 선정...26일까지 접수

나주시가 2018년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 요건은 공고일(지난 5월 31일)로부터 도내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제조업은 2018년 기준 지난 3년 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규제기업, 제조업 전업종(손익 계산서상 전체 매출액에서 제조매출액 차지 비율) 50%미만, 공고일 현재 국제·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는 신청 기업에 대해, 서류 확인, 현장 조사를 실시, 재무·기술·일자리 창출·기업능력 등을 평가해 가점을

매기는 1차 평가 후, 60점(100점 만점) 이상인 기업을 전남도에 추천하게 된다. 전남도에서는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 등 종합평가를 실시, 신규 지정기업을 이르면 내달 초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융자금 지원액 및 이자 지원액 상향 등 자금 지원 ▲국내 개별 박람회,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선정 시가점 부여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선정 시가점 부여 등 판로, 수출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망중소기업 157개사를 선정해 바 있다. 이 중 나주시 소재 중소기업 5개사가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사업 신청 관련, 기타 문의는 나주시 일자리정책실(061-339-8291,8293)로 하면 된다.

/나주=이재순 기자

## 화순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 무더위쉼터 정비·독거노인생활관리사 투입

화순군은 최근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화순군은 폭염에 대비해 T/F팀을 중심으로 폭염부서, 실과소 및 읍·면과 폭염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우선, 무더위쉼터 일제 정비 및 폭염 대비 대국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폭염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폭염주의보 시 가두방송 및 야외활동 자제를 위한 애찰활동을 실시해 운영질환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순군은 이른 폭염에 대비한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안부 확인, 생활안전 교육 등 독거노인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화순군은 이른 폭염에 대비해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폭염피해 예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먼저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무더위 쉼터’ 이용 활성화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농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갖도록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내 독거노인 1,325명에 대해

서는 폭염주의보·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1명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토록 해 폭염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화순군은 폭염특보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폭염정보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에게는 폭염발생시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폭염에 적극 대비토록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충분한 수분섭취, 야외활동 자제,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등 폭염피해예방의 3대원칙을 꼭 지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폭염에 매우 취약하므로 주변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화순=서호령 기자

## 화순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평가

### 16일 테스트...미국 대학탐방 특전

화순군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 수준 진단 2차 평가를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화순중학교에서 실시한다. 지난달 19일 실시한 영어 수준 진단 평가 1차 시험을 통과한 65명(중 41명 고 24명)이 대상이다.

이번 2차 시험은 2개 고사실에서 진행되며, 중학생은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나눠 실시된다. 응시생들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 대기실로 도착해야 한다.

TOEIC위원회에서 주관하는 JET-스피킹 영어 말하기 인증시험은 개인별 노트북 녹음방식으로 진행된다. 녹음된 질문에 답변을 녹음해 평가한다.

1·2차 시험 결과를 합산해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6명 총 16명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자는 방학기간(8월)을 활용해 미국 동북부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 및 해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번 시험결과로 지역간 학교간 위화감 조성 및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은 철저히 비공개된다. 학생들에게만 개별 성적표로 통지되고, 학교 측에는 합격자 명단만 송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한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다”며 “지역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표로 보다 더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서호령 기자

## 담양 드론 활용 벼 항공 직파

### 대전면 성산리 일대 농경지 30ha

담양군은 최근 대전면 성산리 일대 농경지 30ha를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항공 직파’를 실시했다.

이번 벼 항공직파는 쌀 산업 경쟁력 향상, 종자 파종 및 병해충 방제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경운비를 절감하기 위한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드론활용 항공 벼 직파 재배기술은 씨레질 후 물이 없는 상태의 논에 씨를 띄운 법을 드론을 이용해 파종한다. 이앙재배와 달리 육묘과정이 생략돼 일관된 묘내

기보다 비용과 시간, 노동력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항공 직파는 하루에 10~20ha 면적의 병해충 방제도 가능해 기존 작업 대비 2.5~5배까지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농업 경영비 30% 이상 절감과 약 25% 정도의 파종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 함평 ‘베이비 뮤직가든’ 운영

함평군보건소가 4~11개월 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음악 커리큘럼 ‘베이비 뮤직 가든’을 오는 7월 3일까지 총 6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운영한다.

‘뮤직가든’은 부모가 자녀를 띄워 올리며 노래하기, 흔들며 노래하기, 스카프를 통한 게임, 악기 연주하기 등의 음악 활동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지능발달, 정서적 안정감, 부모와의 유대감 조성, 집중력 향상 등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함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의 연령대와 발달과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출산 뿐만 아니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함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나주 010-5617-2605
- 010-3713-7458
- 함평 010-3773-2522
- 영광 010-8666-2882
- 무안 010-3621-8989
- 화순 010-3666-5888
- 장성 010-3666-1300
- 담양 010-4154-8277
- 장흥 010-3613-6114

## 클릭! 고향 소식



### 진도 청소년박람회 참가

진도군 청소년 참여 기구 청소년 34명은 최근 군산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14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뮤지컬을 관람하고 ‘도전하는 꿈은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열린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의 토크 콘서트에도 참여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 청소년들이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높이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 여수 돌산읍 물김치 나눔

여수시 돌산읍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최근 읍사무소에서 사랑의 물김치 나눔행사를 열고 경로당과 홀몸노인 등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 물김치를 전달했다.

김두리 부녀회장은 “이웃들이 시원한 물김치로 울여름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명희 돌산읍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 광양 중마지구대 인권보호 인증

광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최근 중마지구대에서 인권보호 으뜸지구대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인권보호 으뜸부서 인증패 수여는 최근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지향성이 강화되면서 현장 직원들의 능동적 의식 개혁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박종식 서장은 “인권보호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따뜻하게 상대를 대해주는 것이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 무안 안전점검 캠페인

무안군은 최근 무안전통시장에서 제26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무안군청, 무안경찰서, 무안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지사 등 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영농철 각종 교통, 화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